

# 여자청소년의 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또래집단의 성관련 경험, 사회적지지, 그리고 대처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Factors Causing the Female Adolescent Sexual Activity  
- Focused on the Peer Group's Sexual Experiences, Social Support and Coping -

한국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김 만 지

Korea Digital University, Dept. of Social Welfare

Assistant Professor : Manji Kim

## ◀ 목 차 ▶

I. 문제제기  
II. 선행연구  
III. 연구방법

IV. 결과분석  
V. 요약 및 논의  
참고문헌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factors causing the female adolescent sexual activity. 201 female adolesc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Each participant was classified into the sexual activity experience or non-sexual activity experience group on the basis of survey. In total, 87 female adolescents have sexual activity experience, and 114 female adolescents have non-sexual activity experience. Analysis reported that sexual activity experience group was more positive on the adolescent sexual activity than non-sexual activity experience group. Also sexual activity experience group has more peers having sexual activity and pregnancy experience than non-sexual activity experience group. And, sexual activity experience group was more coping level and lower father social support than non-sexual activity experience group.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in order to determine the extent to which the attitude on the adolescent sexual activity, peer group's sexual experiences, social support, and coping factors affected on female adolescent sexual activity. As a results, peer's sexual activity and peer's pregnancy factor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it. Finally based on the results, the intervention strategies were suggested.

**주제어(Key Words):** 여자청소년(female adolescent), 청소년 성행위(adolescent sexual activity), 동료집단의 성경험(peer group's sexual experiences), 사회적지지(social support), 대처(coping)

Corresponding Author: Man-Ji Kim, Hankukhakkwan, Korea Univ., Anam-dong 5-ga, Seongbuk-gu, Seoul 136-701 Korea

Tel: 82-2-953-1810 Fax: 82-2-953-1815 E-mail: manjee@kdu.edu

## I. 문제제기

청소년기는 신체적, 인지적, 그리고 사회정서적 변화를 경험하는 과도기 시기이다. Hall은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많은 신체적인 변화와 더불어서 불연속적인 특성 때문에 청소년기를 질풍노도(Storm und drang)의 시기로 보았다. 이러한 청소년의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가 성적 성숙으로 이들은 의존적이고 성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에서 독립적이고 성적으로 성숙한 성인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있다. 청소년은 독립된 개체로 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아직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회적 변화에 영향을 받기 쉬우며 특히 성과 관련된 태도와 경험에 있어서는 가장 민감한 계층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청소년은 성개방 풍조, 성역할 평등주의, 대중매체에 의한 성적 상품의 범람 등에 아무런 개입 없이 속수무책으로 노출되어 있다(김만지, 2002a).

성관계 경험과 관련된 위험한 행동들이 청소년 인구사이에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청소년기동안 시작된 성관계 경험은 수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성병, 에이즈, 사회적·경제적 부담, 가족 스트레스, 청소년 임신이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임신은 성인기로 이동하는 여자 청소년들에게 장기간의 부정적인 신체적, 심리사회적, 교육적인 영향을 미친다(김만지, 2002a). 청소년은 임신과 출산동안 건강상의 위험, 학교 중도 탈락, 계속되는 빈곤, 결혼 곤란, 편부모로서의 부담을 안게 되고 아이는 왜곡된 인지 발달, 사회행동 적응상의 문제를 겪게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사회 또한 청소년 임신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데 미국의 경우 임신한 10대와 양육하고 있는 10대들에게 매년 70-90억불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ane와 Elwood(1986)는 미혼모 집단에 다른 복지수혜 집단보다 몇 배의 복지비용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또 이른 나이의 출산은 재임신의 높은 가능성을 예측하는 고위험 상태를 예측하게 한다(김만지, 2001).

한편 우리나라 여자 청소년의 성경험을 추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1978년 조사에서는 성경험이 있

는 여고생이 0.8%이었고 1984년 조사에서는 3.7%이었으며(김기환, 1998, 재인용) 1999년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9.8%로 나타나(한인영 외, 2000) 청소년의 성행위가 계속해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성행위는 임신과 연결되는데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1997년 조사에서는 임신경험자가 0.4%로 나타났으며(한국성문화연구소, 1997) 여중생을 대상으로 한 2000년 조사에서는 4.4%로 나타났으며(국무총리 산하청소년보호위원회, 2000) 여자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2002년 연구에서는 4.3%로 나타났다고(김만지, 2002a).

이러한 현실에 비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의 성행동과 관련된 위험요인들에 관한 몇몇 연구들(윤경자, 2002; 한인영·박인선·백연옥, 2001; 한인영 외, 2000)을 제외하고는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여자청소년의 성관계와 관련한 구체적인 연구가 활발하지 못하다. 또래집단은 청소년기 동안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청소년의 성행위는 동성 친구의 성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고 이성 친구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한다. 그래서 청소년은 친구가 성적으로 활발하거나 혹은 성관계에 참여하도록 주위의 권유를 받는다면 성관계에 참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김만지, 2002b). 한편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성관계가 포함하고 있는 강한 정서를 처리하기에는 아직 미성숙하다. 발달론적으로도 청소년들은 만족할 만한 관계를 만드는데 필요로 하는 적절한 기술을 획득하지 못하였으며 더욱이 이른 성행동의 결과로서 청소년들은 불안, 혼란, 좌절, 우울과 같은 감정을 경험한다. 또한 미혼모들은 보통 때보다 스트레스가 많고 스스로 대처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느낄 뿐 아니라 사회적지지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obbins, 1981). 실제로 비효과적인 대처기술과 사회적지지 수준이 낮은 청소년 집단은 약물남용, 우울, 부적응 행동을 할 높은 위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Unger, Kipke, Simon, Johnson, Montgomery, & Iverson, 1998) 사회적지지, 대처와 여자청소년의 성관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일련의 과정은 이른 연령의 성관계로 인한 임신

을 막기 위한 예방책을 모색하는 의의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 대처, 그리고 또래집단의 성관련 경험이 여자청소년들의 성관계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그 실증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여자청소년의 성관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개입 프로그램 개발을 제시하는 실천적인 함의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성관계 경험 유무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둘째, 조사대상자의 성관계 경험 유무에 따라 요인들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셋째, 조사대상자의 성관계 경험에 상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요인은 어떤 요인들인가?

## II. 선행연구

### 1. 여자청소년과 성관계

아동기에서 성인기로의 이동을 시도하고 성인 정체감을 이루려고 하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성활동을 통해서이다(Robison, 1999). 한국성문화연구소(1997)의 연구에 의하면 조사대상 여고생의 76.3%는 이성 접촉이 가벼운 뽀뽀나 손잡기 정도를 넘어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21.3%는 키스·애무·성관계도 나쁘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육체적 성관계를 경험한 여고생은 7.5%로 나타났으며 임신경험이 있는 여고생은 0.4%로 나타났다. 첫 성경험을 갖게 된 이유는 주로 상대방 강요가 38.7%, 사랑하기 때문이 32.3%이며, 성폭행을 당한 경우도 11.9%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응답은 2.1%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성경험자의 성관계 빈도는 1회가 29.8%로 가장 많고, 다음이 2-4회가 29.4%, 8회 이상은 14.0%이었다. 첫 성경험의 시기는 고등학교 때가 57.0%로 가장 많고, 다음이 중학교 때 28.1%, 초등학교 때 11.1% 순이었다. 이러한

성행위 경험과 관련된 위험한 행동들이 청소년 연구사이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은 신체의 변화를 인정받기 위해서 이성이나 잠재적인 성파트너에게 의지하며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성관계를 하게 된 상황을 “그저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김만지, 2000).

### 2. 여자청소년의 성관계에 영향을 주는 관련 요인들

청소년기의 문제 행동은 가까운 친구의 행동이라고 할 만큼 수많은 연구에서 문제행동에의 또래개입 관련성을 주장하고 있는데(Barrera, Biglan, Ary, & Li, 2001) 여자청소년의 성관계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인 지지는 임신한 여자청소년들이 겪는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켜 주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대처는 여자청소년의 임신을 예측하는 영향력있는 요인으로 밝혀졌다(Compas, Commor-Smith, Saltzman, Thomsen, & Wadsworth, 2001; Dumont & Provost, 1999; Barth & Schinke, 1984).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지지와 대처 요인이 여자청소년의 성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자청소년의 성관계에 영향을 주는 관련 요인으로 또래집단의 성관련 경험, 사회적지지, 그리고 대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또래집단의 성관련 경험

또래집단은 청소년기 동안 중요한 사회적 영향력을 미치는데 Hofferth와 Hayes(1987)는 동료가 무엇을 하고 있고 동료집단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은 다른 행동보다는 성행위와 더 강하게 관련 있다고 보고하였다. 청소년은 친구가 성행위를 하거나 혹은 성행위를 권유하면 성행위를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 또래집단이 성행위를 예견하는데 기여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나이 어린 청소년일수록 동료압력에 더 예민한 것으로 나타났다(김만지, 2002b). 한편 Herron(1995)은 행동이 학습되는 것으로 청소년들이 보이는 성행위

의 유형은 그들의 환경에서 보는 의미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였으며 같은 맥락에서 Benda와 DiBlasio (1991)는 차별교제(differential association)가 청소년의 성행위에 영향을 미침을 입증하였다(Herron, 1995). Evans는 친구들 사이의 자유로운 성 태도가 임신과 관계가 있음을 밝혔고 혼전 성관계를 가진 청소년은 자신의 또래 여자 친구들이 갖는 일반적인 가치에 쉽게 동화되어 버린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Shah와 Zelnik는 여자 청소년들이 부모보다 가까운 친구의 성 태도에 영향을 받아 이른 임신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Rainforth, 1996).

## 2) 사회적지지

성관계 경험이 있는 청소년 가운데 사회적지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개인적인 상처로 인한 위험이 덜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arth & Schinke, 1984). 특히 임신한 청소년의 교육적, 직업적 미래는 사회적 지지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는데 사회적 지지가 낮은 임신한 청소년은 대인관계를 시작하거나 유지시키는 기술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Weed, Keogh, 그리고 Borkowski(2000)는 적응탄력적(resilient)인 청소년들이 임신 시기에 상대적으로 형제자매와 친구로부터 지지를 받는다고 하였으며 de Anda, Baroni, Buchwald, Morgan, Ow, Gold, 그리고 Weiss(2000)는 여자청소년들은 남자청소년들보다 부모, 친구, 형제를 포함해서 지지적인 대인관계를 잘 활용한다고 하였다. 한편 부(父)의 심리학적 부재와 성행위의 빈도와 정도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elson, 1997).

## 3) 대처

대처전략은 스트레스를 다루어 나가는 노력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을 관리하고 스트레스의 근원을 해결하려는 목적지향적인 과정이다(Lazarus & Folkman, 1984). 비록 대처전략이 능력과 적응유연성이라는 용어와 상호교환해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능력과 적응유연성의 개념과는 구별된다. 각각의 개념을 살펴보면 대처전략은 적응의 과정을 언급하고, 능력은 성공적인 적응에 필요한

특징과 자원을 언급하고, 그리고 적응유연성은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반응하는 대처전략과 능력사이의 결과를 반영한다. 그러므로, 대처전략은 능력이나 개인 자원을 움직이거나 실행하게 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고, 적응유연성은 이러한 행동의 성공적인 결과로서 보여질 수 있다. 대처전략은 그 효용성과 관계없이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개인에 의해 실행되는 행동과 사고를 말한다. 반면에 적응유연성은 효과적이고 적응적인 태도로 대처하고 스트레스에 직면하는 능력 있는 개인의 대처 반응의 결과를 언급한다. 현실적으로 모든 대처전략 노력이 반드시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대처전략의 결과가 항상 적응유연성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대처전략 노력이 실패하기도 한다. 많은 연구자들은 모든 상황에 효과적인 하나의 대처 전략은 없으며 중요한 것은 상황과 이용하는 대처 전략 사이의 조화라고 밝히고 있다(김성이·김만지, 2002). 한편 청소년기 임신은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더 이상의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없게 한다(Robison, 1999). 이렇게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축적되면 회피를 하거나 통제를 넘어서는 요인으로 돌리거나 비합리적인 신념을 선택하게 되는데(Printz, Shermis, & Webb, 1999) 이러한 부분은 청소년들이 대처관련기술을 습득할 필요성을 암시한다.

## I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는 여자청소년들의 성관계 경험과 관련된 요인들을 찾아내기 위한 집단분석을 위해 미혼모 집단과 재학생 집단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기간은 2000년 1월 14일부터 2월 20일까지 재학생 119명과 미혼모보호시설에 있는 청소년 111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재학생의 경우는 동일기간동안 선정된 학교의 교장선생님께 협조를 구하고 담임 선생님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본 연구자

와 조사원이 직접 설문지를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회수한 설문지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는 제외하였으며 성관계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5명이었다. 미혼모의 경우에는 본 연구자가 질문지 작성법을 설명한 후에 완성된 질문지를 직접 회수하였다. 서울·경기 지역의 미혼모보호시설에 입소한 대상자 111명 가운데 만20세 이하인 총 82명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만12세-만20세의 성관계 경험이 있는 여자청소년 87명, 성관계 경험이 없는 여자청소년 114명인 총 201명을 본 연구의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 2. 조사도구

사회적 지지에 대한 설문은 박지원(1985)의 사회적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적지지 척도는 사회적 지지의 중요한 제공자인 어머니, 아버지, 형제, 친구, 교사가 사회적 지지를 얼마나 제공하는지에 대하여 '매우 그렇게 느낀다' (5점)에서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 (1점)까지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모두 25문항으로 청소년에 의해 지각된 사회적지지 점수의 범위는 각 사회적지지원의 범주에 따라 25점에서 12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 점수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지각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알파)는 .96이었다.

대처방식척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대처로 구분하여 측정하는 척도이다. 대처방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Folkman과 Lazarus (1985)가 개발하고 김정희(1987)가 번안 수정한 대처방식척도(The Ways of Coping)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62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용하지 않음(0점)'에서 '아주 많이 사용함(3점)'의 리커트형 4점 척도에 반응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적극적 대처를 살펴보기 위하여 27문항, 소극적 대처를 살펴보기 위하여 35문항을 활용하였으며 적극적, 소극적 대처방식 척도는 신뢰도 계수(알파)는 각각 .89와 .90이었다.

기타 청소년 성관계에 관한 일반적인 특징은 한인영 외(2000)의 십대임신예방을 위한 질문지 중에서 청소년 성관계와 관련된 문항을 사용하여 조사하였으며 신뢰도 계수(알파)는 .81이었다. 그리고 조사대상자의 연령, 부모의 교육수준, 경제수준 등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측정하였다.

## 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0.0을 이용하여 연구의 목적에 맞게 빈도분석, 교차분석, T 검정, 그리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결과분석

###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성관계 경험 유무의 차이

〈표 1〉에서 성관계 경험이 있는 여자청소년집단과 성관계 경험이 없는 여자청소년집단의 사회인구학적 요인들 간의 차이의 유의미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연령, 현재 신분, 부학력, 모학력 요인에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비연속 변인으로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에서 성관계 경험이 없는 여자청소년집단은 만12세-만14세에 해당하는 비율이 성관계 경험이 있는 여자청소년집단에 비해 높았고 만15세-만20세에서는 성관계 경험이 있는 여자청소년집단에 비해 낮았다. 현재 신분에서는 학생 비율이 성관계 경험이 없는 여자청소년집단은 성관계 경험이 있는 여자청소년집단보다 높았고 반면에 무직 비율은 성관계 경험이 있는 여자청소년집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학력은 중졸 비율에서 성관계경험이 있는 여자청소년 집단이 성관계경험이 없는 여자청소년 집단보다 높았으며 고졸과 대졸이상은 성관계경험이 없는 집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성관계 경험 유무의 차이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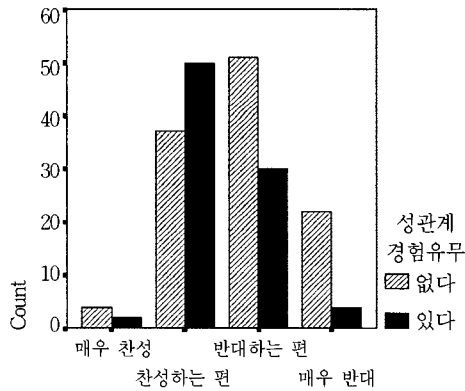
변수	구분	성관계 경험 유 집단	성관계 경험 무 집단	계
연령**	만12세-만14세	12( 13.79)	68( 59.65)	80( 38.8)
	만15세-만17세	38( 43.68)	44( 38.60)	82( 40.8)
	만18세-만20세	37( 42.53)	2( 1.75)	39( 19.4)
	계	87(100.0)	114(100.0)	201(100.0)
현재 신분***	학생	25( 29.1)	92( 80.7)	117( 58.5)
	학원생	2( 2.3)	22( 19.3)	24( 12.0)
	취업중	7( 8.1)	0( 0.0)	7( 3.5)
	무직	45( 52.3)	0( 0.0)	45( 22.5)
	기타	7( 8.1)	0( 0.0)	7( 3.5)
계	86(100.0)	114(100.0)	200(100.0)	
종교	무교	40( 46.5)	45( 39.8)	85( 42.7)
	기독교	24( 27.9)	39( 34.5)	63( 31.7)
	불교	15( 17.4)	16( 14.2)	31( 15.6)
	천주교	5( 5.8)	11( 9.7)	16( 8.0)
	기타	2( 2.3)	2( 1.8)	4( 2.0)
계	86(100.0)	113(100.0)	119(100.0)	
부화력*	무학	2( 2.3)	1( 0.9)	3( 1.5)
	초졸	17( 19.5)	11( 9.6)	28( 13.9)
	중졸	24( 27.6)	26( 22.8)	50( 24.9)
	고졸	37( 42.5)	52( 45.6)	89( 44.3)
	대졸 이상	4( 4.6)	18( 15.8)	22( 10.9)
	무응답	3( 3.4)	6( 5.3)	9( 4.5)
	계	87(100.0)	114(100.0)	201(100.0)
모학력	무학	5( 5.7)	3( 2.6)	8( 4.0)
	초졸	18( 20.7)	12( 10.5)	30( 14.8)
	중졸	22( 25.3)	29( 25.4)	51( 25.4)
	고졸	33( 37.9)	56( 49.1)	89( 44.3)
	대졸 이상	2( 2.3)	7( 6.1)	9( 4.5)
	무응답	7( 8.0)	7( 6.1)	14( 7.0)
	계	87(100.0)	114(100.0)	201(100.0)
주관적인 경제적 계층	상류	0( 0.0)	3( 1.50)	3( 1.5)
	중상류	10( 11.5)	11( 9.6)	21( 10.4)
	중류	52( 59.8)	71( 62.3)	123( 61.2)
	중하류	19( 21.8)	22( 19.3)	41( 20.4)
	하류층	4( 4.6)	3( 2.6)	7( 3.5)
	무응답	2( 2.3)	4( 3.5)	6( 3.0)
	계	87(100.0)	114(100.0)	201(100.0)

\*p&lt;.05 \*\*p&lt;.01 \*\*\*p&lt;.001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또래집단  
성관계 요인의 차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청소년 성관계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생각과 청소년이 임신을 했다면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래집단의 성관계 요인은 친구들의 성관계 경험과 친구들의 임신 경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렇게 조사대상자의 성관계 경험 유무에 따라 일반적 특성과 또래집단의 성관계 요인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네 가지 부분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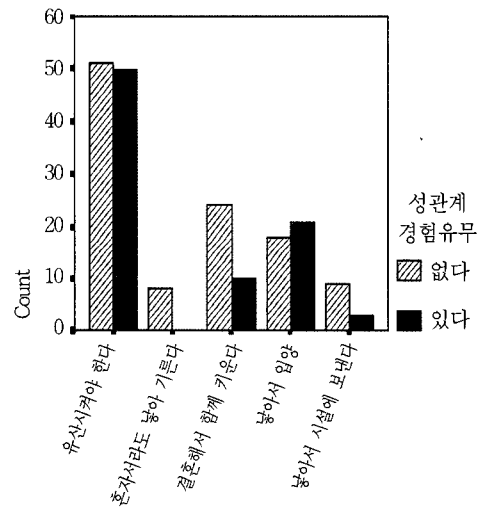
〈그림 1〉에서처럼 청소년 성관계에 대해서는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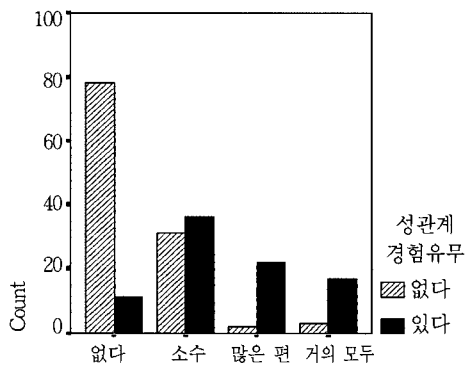
〈그림 1〉 청소년 성관계에 대하여

관계경험이 있는 여자청소년집단은 성관계경험이 없는 여자청소년 집단보다 찬성하는 편이 반대하는 편보다 높았다( $p<.00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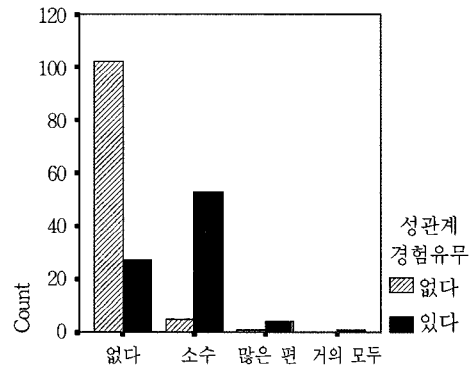
〈그림 2〉에서 청소년이 임신을 했다면에서는 성관계경험이 있는 집단에서는 낳아서 입양을 보낸다가 높게 나타난 반면 성관계경험이 없는 집단에서는 혼자서라도 기른다, 결혼해서 함께 키운다, 낳아서 시설에 보낸다가 높게 나타났다( $p<.01$ ). 두 집단 모두 유산시켜야 한다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



〈그림 2〉 청소년이 임신을 했다면



〈그림 3〉 친구들의 성관계 경험



〈그림 4〉 친구들의 임신 경험

고 있다.

〈그림 3〉에서 친구들의 성관계경험은 성관계경험이 있는 집단이 성관계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그림 4〉에서 친구들의 임신 경험은 성관계경험이 있는 집단이 성관계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 3. 조사대상자의 성관계 경험 유무에 따른 사회적지지, 대처 요인의 차이

〈표 2〉를 보면 조사대상자의 사회적지지에서는 아버지지만 성관계 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아버지지지에서 성관계 경험이 있는 경우의 평균은 86.06으로 경험이 없는 경우의 평균 98.13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p<.01$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적극적대처에서는 성관계 경험이 있는 경우의 평균은 32.28로 경험이 없는 경우의 평균 24.8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p<.01$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극적대처에서는 성관계 경험이 있는 경우의 평균은 48.92로 성관계 경험이 없는 경우의 평균 36.3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p<.001$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것은 문제해결을 위한 대처방식에서 소극적대처 뿐만 아니라 적극적대처의 수준이 성관계 경험이 있는 여자 청소년집단에서 모두 높게 나타난 것이다.

### 4. 조사대상자의 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 분석

성관계 경험 유무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요인들을 중심으로 조사대상자의 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먼저 청소년의 성관계에 대한 태도 및 또래집단의 요인과 사회적지지, 대처 요인을 구분하여 각 영역에서의 성관계 관련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그 다음 단계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다고 검증된 요인들을 다시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 1) 청소년의 성관계에 대한 태도 및 또래집단 요인이 조사대상자의 성관계에 미치는 영향

조사대상자들의 청소년 성관계에 대한 태도 및 또래집단의 성관련 경험 요인에서는 모형의 적합도 검증결과 그 적합성이 입증되었다(Model Chi-Square=153.545,  $p=.000$ ).

〈표 3〉의 분석결과를 보면 조사대상자의 성관계에 미치는 유의미한 요인은 친구들의 성관계 경험과 친구들의 임신경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성관계를 가진 친구들이 많을수록 그리고 임신을 경험한 친구들이 많을수록 성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즉, 친구들의 성관계 경험 빈도가 한 단위 증가함에 따라 여자청소년이 성관계 경험을 가질 예측 odds는 3.5배 증가한다. 그리고 친구들의 임신 경험 빈도가 한 단위 증가함에 따라 여자청소년이 성관계 경험을 가질 예측 odds는 11.5배 증가한다.

〈표 2〉 성관계 경험 유무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사회적지지, 대처 요인의 차이

구 분	성관계 경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값
아버지지지	있다	66	86.06	26.07	131.799	-2.997**
	없다	97	98.13	23.98		
적극적대처	있다	84	32.28	14.43	160.714	3.319**
	없다	79	24.85	14.15		
소극적대처	있다	85	48.92	15.21	165.767	4.902***
	없다	87	36.36	18.29		

\*\* $p<.01$  \*\*\* $p<.001$



〈표 3〉 청소년의 성관계에 대한 태도 및 또래집단 요인이 조사대상자의 성관계에 미치는 요인의 logistic 회귀분석 결과

변인명	B	Wald 통계치	유의확률(p)	Exp(B)
친구들의 성관계 경험	1.266	18.867	.000	3.546
친구들의 임신 경험	2.440	25.191	.000	11.475

2) 사회적지지, 대처 요인 조사대상자의 성관계에 미치는 영향

조사대상자의 사회적지지, 대처 요인에서는 모형의 적합도 검증결과 그 적합성이 입증되었다(Model Chi-Square =154.241, p=.002).

〈표 4〉의 분석결과에서 성관계에 미치는 유의미한 요인은 소극적대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소극적대처의 수준이 높을수록 성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즉 소극적대처가 한 단위 증가함에 따라 성관계 경험을 가질 예측 odds는 1.0배 증가한다.

3) 조사대상자의 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종합분석

조사대상자의 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성관계에 대한 태도 및 또래집단요인, 사회적지지, 그리고 대처의 전체 요인에서는 모형의 적합도 검증결과 그 적합성이 입증되었다(Model Chi-Square=74.993, p=.000).

〈표 5〉의 분석결과를 보면 성관계에 미치는 유의미한 요인은 친구들의 성관계 경험과 친구들의 임신경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관계를 가진 친구들이

많을수록 그리고 임신을 경험한 친구들이 많을수록 성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된다. 즉 친구들의 성관계 경험 빈도가 한 단위 증가함에 따라 여자청소년이 성관계 경험을 가질 예측 odds는 4.9배 증가한다. 또한 친구들의 임신 경험 빈도가 한 단위 증가함에 따라 조사대상자가 성관계 경험을 가질 예측 odds는 26.9배 증가한다. 특히 이들 요인들의 예측 odds값들이 청소년 성관계에 대한 태도 및 또래집단요인만을 살펴보았을 때보다 사회적지지, 대처 요인을 포괄한 전체 분석에서 더 높게 나타난 점은 주목할만하다.

V.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여자청소년의 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여자청소년의 성관계를 예측함으로써 청소년의 성관계와 관련된 일, 이차 예방 개입할 수 있는데 필요한 실증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성관계에 대한 태도, 또래집단의 요인, 사회적지지, 그리고 대처를 중심으로 여자청소년의

〈표 4〉 사회적지지, 대처 요인이 조사대상자의 성관계에 미치는 요인의 logistic 회귀분석 결과

변인명	B	Wald 통계치	유의확률(p)	Exp(B)
소극적대처	.040	4.589	.032	1.041

〈표 5〉 조사대상자의 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전체 요인의 logistic 회귀분석 결과

변인명	B	Wald 통계치	유의확률(p)	Exp(B)
친구들의 성관계 경험	1.593	12.272	.000	4.918
친구들의 임신 경험	3.292	13.836	.000	26.896

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사회인구학적 요인에서는 연령, 현재 신분, 그리고 부학력에서 성관계경험이 있는 여자청소년집단과 성관계경험이 없는 여자청소년집단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의 성관계에 대한 태도, 또래집단의 요인에서도 성관계경험이 있는 여자청소년집단과 성관계경험이 없는 여자청소년집단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적지지, 대처 요인에서도 성관계 경험 유무에 따른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관계경험이 있는 집단이 성관계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아버지지지가 낮으며 적극적대처, 소극적대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자의 성관계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종합 분석에서 친구들의 성관계 경험과 친구들의 임신경험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실증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여자청소년의 성관계와 관련한 구체적인 개입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첫째, 또래집단의 성관계 경험과 임신 경험이 여자청소년의 성관계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친구들의 성관계 경험과 임신경험이 여자청소년의 성관계 경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주장한 Herron(1995), Nelson(1997), Rainforth(199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지지, 대처 요인 등 다른 관련 요인들과 함께 살펴보았을 때 그 영향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나 또래집단의 영향력이 개입 전략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임을 시사하고 있다. 실제로 한인영 외(2000)는 미혼모보호시설에서 참여활동식 청소년 초점집단의 진행을 통해 또래 성교육 지도자 양성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기 특성을 고려한 개입 전략이 다각화되는데 실증적 뒷받침을 제공하는 것으로 또래 개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둘째, 본 연구의 종합분석에서 여자청소년의 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소극적대처와 적극적대처 모두가 성관계경험이 있

는 여자청소년집단에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결과를 볼 때, 대처로 인한 결과가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여자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대처 관련 개입 훈련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모든 대처 노력이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며 모든 대처의 결과가 적응유연성을 반영하는 것도 아니며 효과적인 면에서 실패하는 대처 노력들이 있다는 Compas 외(2001)의 주장을 고려해볼 때 힘든 상황에 대한 문제해결의 방안으로 성관계가 대처의 수단으로 선택되지 않고 오히려 대처가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 문제해결을 위한 개인 자원으로 습득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가 요구된다. 이러한 대처관련 프로그램의 실시는 추후 개인의 보호요인이 강화되고 적응유연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성관계 경험 유무 집단에 따른 사회적지지 요인의 차이에서 아버지지지의 평균이 성관계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성관계 경험이 있는 여자청소년집단에서 낮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여자청소년들이 이성인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아버지의 지지가 이들의 이른 성관계와 관련 있다는 Rainforth(1996)의 연구결과와 연결해서 고려해볼 때 여자청소년의 성관계와 관련하여 아버지의 지지가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가족구조상 아버지의 지지가 부족하거나 받을 수 없는 여자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필요로 하는 심리적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아버지의 역할을 교육하고 그 중요성을 알게 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실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그 동안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여자청소년의 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봄으로써 여자청소년들의 성관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이에 대한 개입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성관계 경험이 있는 여자청소년에게 접근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성관계 경험이 있는 표본을 표집하기 위해서 표집이 가능한 표본에 의존하는 유목적적 표집 방법(purposive sampling)을 사용하였

는데 이는 표본이 연구목적에 적합한 특성을 가지도록 의도적으로 표집하는 것이므로 연구결과를 성관계 경험이 있는 모든 여자청소년에게 일반화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 참고문헌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2000). 중학생의 성의식 조사 및 성교육자료집 개발연구.

김기환(1998). 청소년의 성행위에 대한 고찰. *한국아동복지학*, 8, 187-211.

김만지(2000). 청소년 임신과 스트레스. *한국사회복지학회 2000년 춘계학술대회*, 615-628.

\_\_\_\_\_(2001). 임신한 청소년들을 위한 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9), 27-48.

\_\_\_\_\_(2002a). 여자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 및 성관계 경험에 관한 조사연구. *사회복지, 가을호*, 154, 170-186.

\_\_\_\_\_(2002b). 청소년의 첫 임신 연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9(2), 71-86.

김성이, 김만지(2002). 청소년 스트레스 대처기술의 연령별·성별 차이 연구. *학교사회사업*, 5, 1-18.

김정희(1987).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세트 및 대처방식의 우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지원(1985). 사회적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윤경자(2002). 청소년의 원하지 않는 성행동의 발생과 관련 위험요인들. *대한가정학회지*, 40(1), 179-194.

한국성문화연구소/대한가족계획협회부설(1997). *여고생 성의식 및 성실태 조사 연구*.

한인영 외(2000). *십대임신예방을 위한 참여활동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협력 공동연구.

한인영, 박인선, 백연옥(2001). *청소년의 성행동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2(1), 138-148.

Barrera, M., Jr., Biglan A., Ary D., & Li, Fuzhong, (2001). Replication of a problem behavior model in the american indian, hispanic, and caucasian youth.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1(2), May, 133-157.

Barth, R. P. & Schinke, S. P. (1984). Coping with daily strain among pregnant and parenting adolescents.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7, 51-63.

Compas, B. E., Commor-Smith, J. K., Saltzman, H., Thomsen, A. H., & Wadsworth, M. E. (2001). Coping With Stres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Problems, Progress, and Potential in Theory and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27(1), 87-127.

de Anda, D., Baroni, S., Buchwald, L., Morgan, J., Ow, J., Gold, J. S., & Weiss, R. (2000). Stress, Stressors and Coping among High School Student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2(6), 441-463.

Dumont, M. & Provost, M. A. (1999). Resilience in Adolescents: Protective Role of Social Support, Coping Strategies, Self-Esteem, and Social Activities on Experience of Str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8(3), 343-363.

Folkman, S. & Lazarus, R. S. (1985). If it changes it must be a process: Study of emotion and coping during three stages of a college exami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150-170.

Herron, S. Y. (1995). *Government Intervention and Prevention: Public Policy and Adolescent Sexuality*. Ph. D. diss. Mississippi State Univ.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Springer, New York.

Nelson, M. C. (1997). *Community and Media Influences on Adolescent Sexual Abstinence*. Ph.D. diss.

- Nebraska Univ.
- Printz, B. L., Shermis, M. D., & Webb, P. M. (1999). Stress-Buffering Factors Related to Adolescent Coping: A Path Analysis. *Adolescence*, 34(136), Winter, 715-731.
- Rainforth, M. J. (1996). *Adolescent/Parent Communication About Sexuality: An Examination of Communication Patterns and Teens' Sexuality Behavior Choices*. Ph.D. diss. California Univ.
- Robbins, R. (1981).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 pregnancy and life-change events. *Issues in Mental Health Nursing*, 3, 219-236.
- Robison, C. P. (1999). *Effects of a stress Management Intervention on Levels of Stress and Coping Among Pregnant and Parenting Adolescents: An Intervention*. Ph. D. diss. Howard Univ.
- Unger, J. B., Kipke, M. D., Simon, T. R., Johnson, C. J., Montgomery, S. B., & Iverson, E. (1998). Stress, coping, and social support among homeless youth.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3(2), 134-157.
- Weed, K., Keogh, D., & Borkowski, J. (2000). Predictors of Resiliency in Adolescent Mother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1(2), 207-231.
- Webb, W. (1994). Teen Sexuality: Empowering Teens to Decide. *Policy Studies Reviews*, Spring/Summer, 13:1/2, 127-139.

(2002년 4월 30일 접수, 2003년 5월 19일 채택)